

김중서박사가 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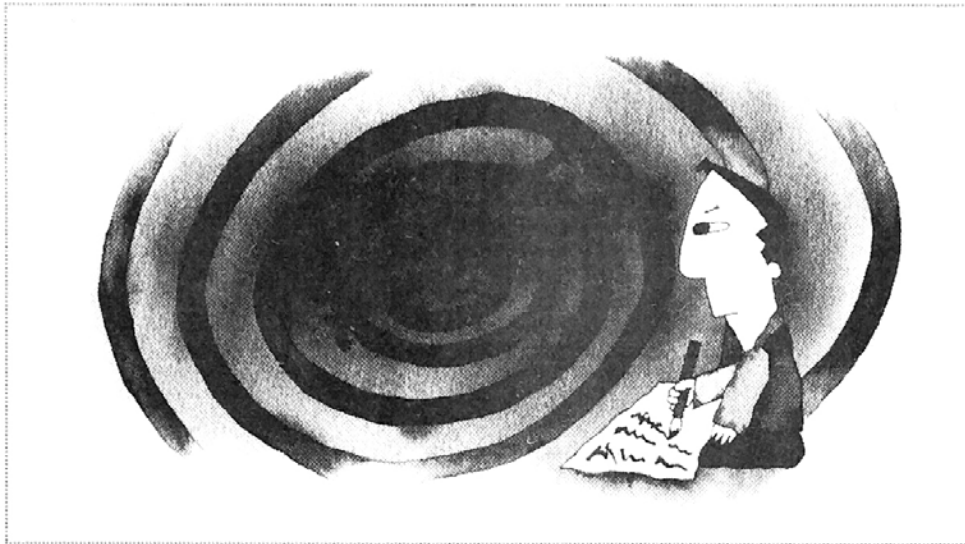
불교와 교육 <1>

자아실현과 삼매

나와 너 버리면 참다운삶 찾아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없이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평생동안에 걸쳐 이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극히 일부분을 실현시킬 뿐 대부분의 가능성은 발현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라진다. 따라서 인간의 잠재적 능력인 가능성을 얼마나 실현 시켰느냐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라고 볼 수 있다.

마슬로우(Maslow)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 욕구의 위계설을 주장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자아실현의 욕구는 평생에 걸쳐 충족시켜야 하는데 종래는 이 욕구의 충족을 학교교육에 한정시켜서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학교교육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학교교육은 평생교육의 일환이며 기초라고 여겨지는 교육사회에서는 학교교육에 못지 않게 사회교육의 한 분야인 여성의 취미교실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많은 가정주부들은 전통적 가치관이나,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자아실현의 기회를 상실하고 가정에만 충실하게 생활하여 오다가 중년이 되면 자아 정체감을 상실하고 허탈감에 빠지는 수가 있다. 이들 주부에게 자아실현의 일부인 취미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자아 충족감에 사로잡혀 정서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학교교육만의 한계성

인간은 평생 동안에 걸쳐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는 바, 이를 충족시키는 생활이 평생 동안 계속될 때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필자가 정년퇴임을 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 중 나와 같이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나. 이 나라 미래를 이끌고 갈 2세 교육문제는 '백년대계'를 내세우며 가정 학교 사회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과 방법에서 정석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 문제가 범람하고 사

회문제로 부상된 현실에서는 그 해답이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본지는 참교육의 지혜를 찾고자 서울대 명예교수로 평생을 교육계에 바쳤고 현재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중서 박사의 불교적 가치관과 교육이념을 제시한다. <편집자 주>

필자약력



- 서울대 교육학과 졸업
- 美 조지피비디 사범대 문학석사(교육학)
- 서울대 문학박사(교육학)

-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
- 덕성여대 총장
- 서울대 명예교수(현)
- 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현)
- 대통령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현)
- 서울신문화상 ·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 저서 <교육연구의 방법>의 2권 논문 '집단지적 교육과정 연구'의 54편

“참선·염불·독경 최상의 몰입 청정한 마음자리로 전환”

즐겁고 보람되게 산 사람도 드물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진 바 있다. 그것은 나의 잠재적 능력이 고인된 바 교직을 통하여 평생 동안에 걸쳐 자아실현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평생 동안 하루같이 즐거운 생활의 연속이었다. 교직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권력을 얻은 바도 아니고 경제적 부를 축적한 바도 아니나 다른 그 누구보다도 스스로 회담감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인간다운 삶은 자기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과정에서 몰입(沒入)되고 몰아(沒我)되며 무아지경에 이르는 삼매(三昧)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삼매의 경지에 도달할 때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있으나 그 순간에는 이를 느끼지 못하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기쁨과 슬픔이 끊어진 자리이며 행복과 불행이 붙을 수 없는 청정한 마음자리이다.

붓글씨를 쓸 때 그것이 서도(書道)의 경지를 이루어야 한다. 서도의 경지는 서예가들 뿐 아니라 붓글씨를 쓰는 사람이면 그 누구도 경험하는 경지이다. 붓글씨를 쓰는 순간에 탐

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은 사라지며 인간의 맑고 깨끗한 모습이 나타난다. 혼탁하고, 더럽고, 속이고,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참다운 삶을 찾으려면 나를 잊어버리고 너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잊어버리는 삼매(三昧)의 체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는 알았다” 체험전진

화선지 위에서 먹물로 천지를 창조해 나갈 때 세속적인 욕심이 감히 어떻게 침입하겠는가? 오직 붓과 종이와 내가 있을 뿐이다. 붓과 종이 속에서 나를 찾고 나 속에서 붓과 종이를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최대한의 자아실현이다.

이것은 유리카(eureka: 나는 알았다)의 단계이기도 하다. 아르키메데스가 금의 순도(純度)를 아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하루는 물이 가득한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물이 넘쳐 흘렀다. 이 순간 아르키메데스는 금의 순도를 아는 방법을 찾았고 너무나 좋아서 유리카(나는 알았다)라고 소리치며 나체로 거리로 뛰어 나갔다. 인간이 '유리카'의 단계에 이를

때 즉 삼매의 경지를 체험할 때 참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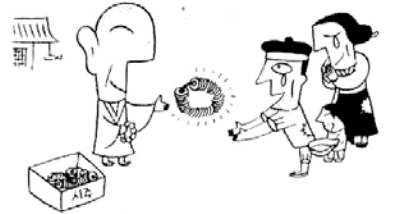
<논어>에도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다. 일을 즐기고 몰입하고 무아지경에 이르는 삼매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삼매의 경지에 이르려면 자기가 하는 일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예화에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석공 3인이 돌을 다듬고 있었다. 한 사람은 명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물어 보았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나는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다음 사람은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한 즉 “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다른 한 사람은 흥겨운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질문을 한 즉 “나는 잠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었다.

자아실현은 삼매의 경지를 가져오며 삼매의 경지는 인간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와 같은 자아실현 중에서도 최고, 최상위에 있는 자아실현이 종교적 자아실현이다. 참선삼매, 염불삼매, 독경삼매, 기도삼매에 몰입하는 자아실현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깨끗하고, 맑고, 고요하고, 성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불교용어



불교문화가 우리 역사의 줄기이듯 우리 말 가운데는 불교용어가 많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와는 그 본뜻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본래의 뜻은 보존되어 있으나 이해가 쉽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생활 속에 융화되어 있는 불교용어를 바르게 이해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저절로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윤택해 질 수 있다. 그 길잡이로 인길모씨(인천민방 기획심의 실장)의 <이판사판 아담법석>을 참고 발췌하여 매주 생활불교용어를 알기쉽게 풀이한다. <편집자 주>

무진장(無盡藏)

다함없는 무한자비 보시행 양과 질이 엄청나게 많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인가”의 명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일상언어속의 불교용어가 있다. ‘무진장(無盡藏)’이다. 양적 질적으로 다함이 없이 엄청나게 많음을 표현할때 ‘무진장하다’고 말한다. ‘재물이 무진장 많다’는 말은 물질의 양적인 무한량을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 무진장 넓다’는 표현은 덕성(德性)의 광대 무변을 비유한 말이다.

<불교대사전>에서 단어 ‘무진장’을 찾아보면 ‘무진’과 ‘장’으로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무진’이란 덕이 넓어서 무궁함을 뜻하고, 무진장을 포함한 것을 장이라 한다’고 정의했다. <유마경> ‘불도품’의 무진장에 대한 해석은 훨씬 사회적이다. ‘빈곤한 중생을 돕고 이렇게 함은 무진장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했으니 이경우는 불교의 자비사상과 무진장을 동일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자비사상의 실천적 표출은 결국 보시(布施)가 된다. 최상의 보시는 무주처(無住處)보시이다. 무주처보시는 무진장한 자비의 중생에게 무진장한 연민을 갖고 무진장 오랫동안 취사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과학시대와 달라서 옛날에는 재물이 많았을 것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때마다 우리 스님들과 부자들이 보여 준 빈민 구제사업은 실로 무진장했던 것으로 많은 기록이 전한다. 고려대금에 시달리는 서민을 돕기 위해 절에서 실시한 장기 저리 무담보 사설금융이 곧 ‘무진장’이다. 무진재(無盡財), 무진장리(無盡藏)이라고도 불리었다.

오늘날의 무진회사는 불교의 자비심이 푸근하게 깃들여 있는 사설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무진장의 자산금은 신도들이나 장안의 큰 단원주(檀越主)가 내는 시주물로 이루어졌다. 그때 스님들은 재가 신도들이 시주한 금액을 그렇게 알뜰히 그리고 베풀어 줬다. 고려말 조선초 까지도 이 무진장원의 운영은 꽤 활발했던 것으로 기록에 전한다. 그 때처럼 무진장 주고 베푸는 사회로 돌아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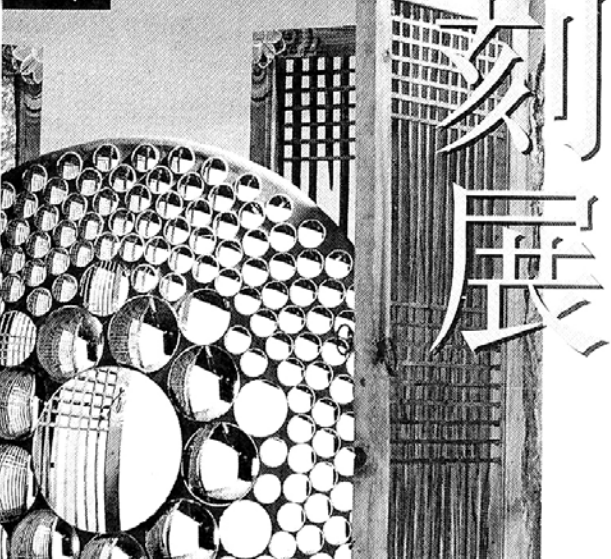
※ 참고문헌: 안길모著 '이판사판 아담법석'

LEE CHUNG WON BUDDHISM·CARVE·EXHIBITION

靑苑스님

LEE CHUNG WON BUDDHISM·CARVE·EXHIBITION

靑苑스님 傳統佛教와 現代佛敎彫刻의 만남



- 일 시 : 1997년 10월 1일 ~ 7일
- 장 소 : 공평아트홀
- 후 원 : 부산광역시 목공예사업협동조합
- 연락처 : (051)972-3912, 971-2174

공평아트센터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5-1 (공평B/D 1-2층)
TEL: (02)733-9512~4

